

#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sup>1)</sup>

한 덕 응 · 이 장 호 · 전 경 구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Spielberger(1983)가 제작한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I-Y)의 한국어판을 제작하였다. 성별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385명, 전문대학생 3172명, 일반 대학생 4452명 및 정상 성인 207명을 포함하여 총 82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료로부터 검사의 신뢰도(문항-잔여 문항 점수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 , 세 시점간 재검사 신뢰도), 기준 및 타당도(상태-특성 불안검사 각각의 요인 구조와 전체 문항들의 요인 구조, 한국 대학생과 미국인과의 요인구조의 합치도 COMCONG 추정, 평상시와 비교한 시험 조건에서의 타당도, Taylor의 MAS 및 Eysenck의 MMQ와의 공존타당도)를 보고하였다.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룬 결과를 보면 비교적 만족하게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측정할 수 있었다. 전체 자료로부터 한국의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체계적으로 표집한 1000명의 표본으로부터 상태-특성불안(Y형) 검사의 미국형과 한국형이 마련되었으며, 전국 기준이외에 성별, 학력, 및 연령에 따른 잠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미국형 상태-특성 불안검사 문항을 사용하였을 때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여성은 남성보다, 10대와 20대 연령층은 30대 이상보다 상태 및 특성 불안의 특점이 모두 높다고 추정되었다. 상태-특성 불안검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이 연구의 결과들을 논의하였으며, 이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를 위한 제안도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Spielberger(1983)에 의해서 제작된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Y)의 한국어판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검사의 X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항표 검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세계 40여 개국 이상에서 각국어 판으로 제작되어서 비교 문화 연구나 임상 실무 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김정택(1978)이 X형을 번안하여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도록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한덕응, 이창호와 탁진국(1993)은 전국의 6개 대학교 남녀 대학생 1781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상태-특성 불안검사 X형을 제작하여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와 아울러 전체 대학생, 남자 대학생 및 여자 대학생용 기준을 보고한 바 있다.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Y형은 X형 검사를 연구하고 널리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X형 검사의 문항들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개정하여 이루

1) 이 검사의 개발에 동의하고 협조해 준 Spielberger에 감사한다. 또한 국내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준 여러 선생님들과 조사 대상인 익명의 피험자들, 및 자료의 분석에 수고한 박군석 강사와 한인순 강사(성균관대)에게 감사한다.

어졌다. Spielberg가 X형 검사를 개정하여 Y형 검사를 제작한 목적은 개념적으로 가정하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데 있었다. Spielberg가 불안 경험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분하는 배경은 그보다 앞서 불안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 현상을 효과적으로 연구하지 못한다고 본 데 있다. 원래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구분은 Cattell(1966)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Spielberg(1966, 1972)에 의해서 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일반적으로 불안은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심리학적 구성개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Spielberg(1983, p. 1)는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성불안(T-불안)은 비교적 안정된 불안 성향의 개인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특성불안이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을 위협하거나 위협이 된다고 지각하거나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불안 반응들의 강도를 높여서 반응하는 경향에서의 개인차로 정의한다.

한편, 상태불안이란 자율 신경계의 활성화 혹은 흥분 유발에 의한 긴장, 우려, 초조 및 걱정의 주관적 상태이다. 즉, 상태불안이란 특정한 순간에 일정한 수준의 강도로 경험되는 한 정서 상태이다. Spielberg가 이와 같이 정의된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을 측정하고자 제작한 X형 검사를 사용해 본 결과,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pielberger, 1983, p. 2). 첫째, 불안과 우울 감정을 변별하고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잘 변별할 수 있도록 더 순수한 불안 측정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젊고, 교육 수준이 낮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하는 집단들을 대상으로 불안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한 몇 개 문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요인분석해 본 결과, 불안있음과 불안없음의 두 요인 구조가 추출되었는데, 이 두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수를 균형 있게 맞출 필요가 있었다. Spielberg는 이 세가지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X형 검사 문항들 가운데 개선이나 대치가 필요한 문항들을 개정하여 Y형을 제작하

였다.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X형과 달리 Y형에서 대치된 문항들을 알기 쉽게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개정된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을 한국어판으로 제작하여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되는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방법 및 절차

상태-불안 검사의 예비 문항 제작: Spielberg(1983)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을 구성하는 총 40개의 문항들을 필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번역에서는 직역한 문항들 외에 각 문항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대안 번역 문항들도 예비 문항들로 사용하였다. 이 번역에서 Spielberg, Gorsuch 및 Lushene(1970)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X형과 동일한 문항들은 한덕웅 등(1993)이 제작한 한국어 문항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Spielberg이 예비 문항들로 사용하였으나 최종 문항 선정에서 빠졌던 문항들(예; 나는 불안하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과 한국인의 불안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항들도 추가로 첨가되었다. 이처럼 만들어진 예비 문항 수는 상태 불안검사 47문항, 특성 불안검사 54문항으로써 모두 101개 문항이었다.

예비 조사와 문항 선정: 서울과 대구 시내의 남녀 고등학생 385명과 대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문항 분석을 위한 첫 예비 조사가 실시되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차 예비 문항들이 선정되었는데, 문항-잔여 문항들 간의 적률 상관(Pearson  $r$ ), 요인 부하량, 상태와 특성불안 두 소검사 각각의 신뢰도(Cronbach  $\alpha$ )가 계산되었다. 이 첫번째 문항 선정 과정을 거쳐서 상태불안검사 39문항과 특성불안검사 45개 문항으로 총 84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두번째 예비조사는 서울 시내 전문 대학생 3172명, 대학 신입생 3980명, 성인 207명에게 실시되었는데, 이 두번째 자료도 첫 예비 조사 자료의 분석

< 표 1 > X형과 달리 Y형에서 대치된 문항들

원래 문항(X형)	대치된 문항(Y형)
<u>상태불안 척도</u>	
4. 나는 자주 후회한다	4. 나는 긴장감을 느낀다
8. 나는 쉬고 있는 느낌이다	8. 나는 졸졸하다
9. 나는 불안하다	9. 나는 두렵다
14. 나는 아주 긴장되어 있다	14. 나는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18. 나는 심하게 긴장되어 몸이 떨릴 지경이다	18. 나는 혼란스럽다
19. 나는 즐겁다	19. 나는 마음이 중요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u>특성불안 척도</u>	
22. 나는 쉽게 피곤을 느낀다	22. 나는 초조하고 안절부절한다
23. 나는 쉽게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23. 나는 자신에 만족한다
25. 나는 결정이 더디어서 매사에 손해를 본다	25. 나는 낙오자 처럼 느낀다
31. 나는 매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편이다	31. 나는 여러 생각들로 마음이 혼란스럽다
34.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34. 나는 어렵지 않게 일을 결정한다
35. 나는 우울하다	35. 나는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첫 예비 조사와 두 번째 조사 자료의 문항 분석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상태 및 특성 불안검사 각각 20개 문항씩 총 4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또한

전국 인구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유사한 구성비가 되도록 전체 자료로부터 체계적 표집 방법으로 추출된 1000명의 표준화 집단 자료에서도 문항의 내적 합치도(문항-간여 문항 상관 계수와 Cronbach  $\alpha$ )와 요인타당도가 다시 검토되었다.

미국판과 한국판 불안검사: 예비 조사를 통해서 Spielberger의 원판과 동일한 문항들로 이루어진 미국판 상태-특성 불안검사가 제작된 이외에 한국판 상태-특성 불안검사도 제작되었다. 한국판의 상태불안검사는 미국판과 동일하고 특성불안검사만 별도로 제작되었다. 한국판 특성 불안검사는 미국판에서 예비 문항으로 사용되었으나 문항 분석 과정에서 탈락한 문항으로서 한국인의 불안을 측정하기에 더 적합한 문항들(예; 나는 불안하다)과 미국판에 포함되지 않았으

나 한국판에 추가되어서 요인 타당도와 문항 분석 결과가 양호한 문항들(예; 나는 쉽게 불안해지는 사람이다,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을 그렇지 못한 문항들(예; 나는 어렵지 않게 일을 결정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 처럼 행복해지고 싶다)을 대치하여 만들어졌다. 이 보고에서는 발표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미국판 검사의 실시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실시: 조사 대상의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네 선택지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특성불안의 측정에서는 “당신이 일상적으로 흔히 느끼고 있는 자신의 성격적인 경향”을 동일한 네 선택지에 반응토록 하였다.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4점으로 채점되었다. 그러므로 검사의 득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제작 과정에서

< 표 2 > 조사 대상의 성별 및 학력별 분포

검사유형 \ 성별	학 력		고 교		전문대		대 학		성 인(30대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상태불안	187	188	1958	1039	2884	1488	103	90		
특성불안	179	185	1936	1030	2858	1468	96	84		

모두 8216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성별과 학력별로 조사 분석 대상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조사 대상인 8216명 가운데 서로 다른 102명과 67명은 각각 세 시점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시험 조건에서의 불안 수준의 측정에도 참여하였다.

**표준화 집단:** 전체 조사 대상의 검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8216명 가운데 1000명을 체계적 표집 방법으로 가려내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10대 남녀 각각 200명씩 400명, 20대 남녀 각각 200명씩 400명, 그리고 30대 이상의 남성 109명과 여성 91명이 선정되었다.

**검사의 요인 구조와 요인 구조의 일치도:** 검사의 요인 구조는 SAS를 사용하여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 회전시키는 방법을 썼다. 검사의 요인 구조 분석은 상태 및 특성 불안검사별로 시행되었고,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두 검사를 포괄하여 40개 전체 문항들의 요인 구조도 산출하였다. 특히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40개 문항 모두를 사용한 세 요인 해결에서는 축 회전에서 사교 분석도 실시되었는데, 이에 관한 자료는 첫 필자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한국어 검사와 미국어 검사의 합치도를 보기 위한 요인 구조 일치도는 Spielberger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고된 문항별 요인 부하량에 의해서 이순목(1995)의 COMCONGC로 추정하였다.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자료의 분석:** 이 보고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불안 수준의 차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 시간 경과 후의 불안 수준의 차이, 시험 전후의

불안 수준의 차이 등이 검토되었다. 이 차이 검증에는 Spielberger의 연구 관례에 따라서 t 검증이 사용되었다.

### 결과 및 논의

결과 및 논의에서는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신뢰도, 기준, 타당도 및 이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를 위한 제언의 순서로 실기로 한다.

####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신뢰도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상태 불안검사의 신뢰도는  $\alpha=.92$ 였으며, 특성 불안검사의 신뢰도는  $\alpha=.90$ 이었다. 1000명의 표본 자료로부터 상태-특성 불안검사별로 문항-잔여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Pearson r로 산출한 결과는 표5 및 표6의 우측란에 제시되었다(p. 6 우측 두 란).

**검사-재검사 신뢰도:**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 신입생 102명을 대상으로 입학 직전(제 1 시점), 그로부터 2개월 후(제 2 시점), 및 2개월 반 후(제 3 시점)에 검사가 반복 실시되었다. 상태-특성 불안검사 총특점의 시점별 평균과 시점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3 및 표 4와 같다. 표 3의 상태 불안검사 총점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15일 간격의 2시점과 3시점 사이에서  $r=.38$ 의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 60일 후나 75일 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r=.41$ 과  $r=.33$ 으로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 표 3 > 상태불안검사의 시점별 평균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1차 시점 (입학 직전)	2차 시점 (2개월 후)	3차 시점 (2.5개월 후)	시점간 상관 (r)		
	A	B	C	2개월 (A-B)	2.5개월 (A-C)	15일 (B-C)
1. 평안하다	2.31(0.73)	2.02(0.78)	2.29(0.79)	0.36***	0.10	0.25*
2. 안정된 느낌	2.29(0.75)	1.98(0.77)	2.23(0.79)	0.32**	0.18	0.27**
3. 긴장감 느낌	1.80(0.63)	2.11(0.78)	1.89(0.74)	0.26**	0.06	0.26**
4. 심하게 긴장	1.19(0.49)	1.54(0.69)	1.42(0.67)	0.21*	0.35***	0.10
5. 마음이 편함	2.27(0.71)	1.92(0.75)	2.23(0.79)	0.35***	0.11	0.27**
6. 속상하다	1.29(0.49)	1.90(0.88)	1.75(0.81)	0.25*	0.28**	0.13
7. 불행닥칠걱정	1.29(0.57)	1.53(0.69)	1.62(0.77)	0.42***	0.35***	0.31**
8. 흠족하다	2.21(0.72)	1.93(0.67)	2.24(0.75)	0.47***	0.27**	0.31**
9. 두렵다	1.33(0.57)	1.68(0.63)	1.55(0.75)	0.36***	0.49***	0.29**
10. 편안하다	2.29(0.71)	1.93(0.72)	2.29(0.68)	0.39***	0.23*	0.34***
11. 자신감 느낌	2.39(0.87)	2.11(0.84)	2.22(0.82)	0.46***	0.29**	0.49***
12. 안절부절	1.25(0.46)	1.79(0.77)	1.56(0.63)	0.04	0.28**	0.22*
13. 초조하다	1.29(0.52)	1.75(0.74)	1.64(0.67)	0.17	0.25*	0.24*
14. 어찌할바모름	1.36(0.54)	1.88(0.79)	1.72(0.81)	0.21*	0.25*	0.45***
15. 느긋한 기분	2.16(0.69)	1.91(0.85)	2.20(0.78)	0.31**	0.18	0.41***
16. 만족감 느낌	2.21(0.72)	1.88(0.71)	2.24(0.77)	0.44***	0.28**	0.29**
17. 불안하다	1.38(0.54)	1.86(0.83)	1.73(0.69)	0.14	0.33***	0.35***
18. 혼란스럽다	1.49(0.60)	2.02(0.83)	1.84(0.81)	0.25**	0.24*	0.48***
19. 동요없이안정	2.32(0.73)	1.88(0.76)	2.19(0.81)	0.25*	0.32**	0.39***
20. 기분이 좋다	2.16(0.75)	1.92(0.75)	2.29(0.82)	0.46***	0.18	0.28**
상태불안 총점평균	41.07(7.98)	48.51(10.74)	44.20(10.88)	0.41***	0.33***	0.38***

\*\*\* .001 \*\* .01 \* .05 이하 동일

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특성불안과 달리, 상태불안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는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참고로 Spielberger(1983, p. 13)의 보고에 따르면, 60일 후의 상태불안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남성에서  $r=.51$ , 그리고 여성에서  $r=.36$ 으로서, 한국 남녀 대학생으로부터 얻은  $r=.41$ 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그 사이의 값을 지닌 상관계수이다.

상태 불안검사의 각 문항별로 산출한 시점간 상관계수들로부터 시점간 간격이 클수록 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관계수를 보인 문항들이 많아짐도 볼 수 있다. 즉, 검사 실시 시점간 간격이 15일인 경우에 상태불안 측정치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문항들은 두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60일의 간격이 있는 재검사에서는 3개 문항들, 그리고 75일의 간격이 있

는 경우에는 6개 문항들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각 문항들로 측정하는 상태불안 수준이 시점 경과에 따라서 달라짐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상태불안의 정의와도 합치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점 간격이 있게 될 때 모든 상태불안 문항들이 유의 상관을 보이지 않을지 장차 연구해 볼 과제이다.

한편, 특성불안 총점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15일 간격에서  $r=.76$ , 60일 간격에서  $r=.63$ 으로서 시점에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Spielberger가 60일 간격에서 남성  $r=.68$ , 여성  $r=.65$ 의 상관을 보고한 바와 매우 유사하다. 이들의 보고를 보면, 104일 경과 후에 상태불안의 검사-재검사 상관이 남성  $r=.33$ 이고 여성이  $r=.31$ 인데 비해서, 특성불안에서는 남성  $r=.73$ 과 여성  $r=.77$ 의 안정된 높

< 표 4 > 특성불안검사의 시점별 평균과 재검사 신뢰도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	시점간 상관(r)		
	(입학 직전)	(2개월 후)	(2.5개월 후)	2개월	2.5개월	15일
	A	B	C	(A-B)	(A-C)	(B-C)
21. 유쾌하다	2.43(0.67)	2.47(0.69)	2.41(0.76)	0.47***	0.56***	0.41***
22. 초조안절부절	1.43(0.55)	1.64(0.58)	1.75(0.69)	0.24*	0.30**	0.39***
23. 자신에 만족	2.52(0.78)	2.45(0.83)	2.30(0.74)	0.56***	0.61***	0.50***
24. 타인처럼행복	2.38(0.70)	2.46(0.81)	2.49(0.67)	0.36***	0.37***	0.50***
25. 낙오자	1.48(0.54)	1.64(0.52)	1.64(0.52)	0.54***	0.52***	0.63***
26. 마음 편함	2.59(0.62)	2.54(0.71)	2.48(0.69)	0.28**	0.31**	0.56***
27. 느긋하다	2.44(0.65)	2.37(0.70)	2.31(0.73)	0.56***	0.44***	0.45***
28. 걱정과 피로	1.69(0.77)	2.13(0.77)	2.18(0.80)	0.52***	0.35***	0.48***
29. 사소한 걱정	2.18(0.72)	2.35(0.75)	2.21(0.74)	0.58***	0.39***	0.44***
30. 행복하다	2.54(0.64)	2.47(0.73)	2.48(0.67)	0.42***	0.34***	0.53***
31. 생각마음혼란	1.88(0.66)	1.64(0.58)	2.21(0.78)	0.28**	0.34***	0.19*
32. 자신감 없다	1.76(0.66)	1.88(0.74)	1.94(0.73)	0.51***	0.46***	0.47***
33. 안정감 느낌	2.61(0.69)	2.53(0.76)	2.47(0.74)	0.45***	0.42***	0.59***
34. 힘듦없이결정	1.88(0.68)	1.87(0.79)	1.90(0.71)	0.38***	0.24*	0.42***
35. 자신이부적절	1.69(0.66)	1.93(0.67)	1.83(0.73)	0.48***	0.28**	0.45***
36. 만족스럽다	2.50(0.64)	2.45(0.69)	2.40(0.71)	0.49***	0.43***	0.48***
37. 지나친괴로움	1.84(0.74)	2.14(0.87)	2.05(0.83)	0.64***	0.37***	0.50***
38. 낙심 못 떨굼	2.06(0.70)	2.31(0.81)	2.14(0.72)	0.49***	0.48***	0.35***
39. 안정된 사람	2.57(0.69)	2.39(0.68)	2.42(0.71)	0.44***	0.39***	0.44***
40. 당면걱정긴장	2.02(0.63)	2.25(0.77)	2.25(0.79)	0.25*	0.39***	0.41***
특성불안 총점평균	43.50(7.57)	46.74(8.59)	46.56(8.83)	0.68***	0.63***	0.76***

은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들은 모두 특성불안이 비교적 안정된 개인의 불안 성향을 측정한다는 가정을 충족시켜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으로는 대학생 남녀 및 전체 기준이 마련되었다. 고등학생이나 성인용으로는 잠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상태-특성불안을 측정하는 자기 감정 평가 질문지에 실린 문항들과 기준은 판권 계약이 완료되는대로 학지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타당도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요인 구조: 검사의 요인 구조는 8216명의 전체 조사 대상, 1000명의 표준화

표본 집단, 그리고 성별 및 연령 집단 각각에서 얻은 요인 구조가 매우 유사하였는데, 여기서는 1000명의 표본 집단 자료를 보고하기로 한다(표 5와 표 6). Spielberger(1983)의 보고를 참고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두 요인들은 불안-초조-긴장 등 불안있음 요인과 안정을 나타내는 불안없음 요인으로 나뉜다. 표 5과 표 6의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상태 및 특성불안검사의 문항들이 각각 불안있음과 불안없음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판과 한국판 요인 구조의 일치도: 미국어 상태-특성 불안검사와 한국어 검사의 요인 구조 일치도를 이순목(1995)의 COMCONG로 측정하였다. 미국 공군 지원자 1728명에게 실시하여 얻은 요인 구조와 한국인 1000명에게서 얻은 요인 구조의 일치도는 상태불안검사에서는 .97이었고, 특성불안검사는 .94로써

< 표 5 > 상태불안검사의 두 요인 구조

문항요약	요인1	요인2	h <sup>2</sup>	문항-잔여 상관	Cronbach α
1 평안하다	.81	.22	.72	.72	.91
2 안정된 느낌	.79	.23	.68	.71	.91
5 마음이 편함	.77	.24	.66	.70	.91
8 흡족하다	.71	.14	.51	.58	.92
10 편안하다	.72	.19	.55	.64	.91
11 자신감 느낌	.62	.15	.41	.54	.91
15 느긋한 기분	.67	.18	.49	.59	.91
16 만족감 느낌	.72	.13	.54	.60	.91
19 등요업이안정	.61	.31	.46	.64	.91
20 기분이 좋다	.75	.13	.59	.61	.91
3 긴장감 느낌	.13	.55	.33	.44	.92
4 심하게 긴장	.12	.43	.20	.47	.92
6 속상하다	.27	.62	.45	.58	.92
7 불행닥칠걱정	.20	.62	.43	.54	.92
9 두렵다	.20	.71	.55	.59	.92
12 안절부절	.18	.60	.40	.58	.92
13 초조하다	.26	.69	.56	.63	.91
14 어찌할바모름	.22	.62	.42	.53	.92
17 불안하다	.27	.74	.63	.67	.91
18 혼란스럽다	.27	.65	.50	.60	.91
전체 (50.03%)	5.68	4.37	10.05		.92

< 표 6 > 특성불안검사의 두 요인 구조

문항요약	요인1	요인2	h <sup>2</sup>	문항-잔여 상관	Cronbach α
21 유쾌하다	.72	.14	.54	.54	.90
23 자신에 만족	.64	.26	.49	.60	.90
26 마음 편함	.77	.21	.64	.62	.89
27 느긋하다	.61	.19	.40	.52	.90
30 행복하다	.77	.14	.55	.55	.90
33 안전감 느낌	.67	.18	.48	.56	.90
34 힘들없이결정	.29	.06	.09	.23	.91
36 만족스럽다	.72	.14	.55	.59	.90
39 안정된 사람	.74	.28	.63	.67	.90
22 초조안절부절	.19	.59	.39	.55	.90
24 타인처럼행복	.01	.28	.08	.19	.90
25 낙오자	.21	.53	.33	.51	.89
28 걱정과 피로	.25	.65	.48	.61	.90
29 사소한 걱정	.15	.68	.49	.57	.90
31 생각마음혼란	.23	.73	.58	.62	.90
32 자신감 없다	.20	.55	.34	.51	.90
35 자신이부적절	.23	.58	.39	.56	.90
37 지나친괴로움	.16	.77	.62	.62	.90
38 낙심 못 떨끔	.20	.64	.45	.57	.90
40 당면걱정긴장	.17	.71	.54	.60	.90
전체 (45.04%)	4.61	4.46	9.07		.90

< 표 7 > 상태 특성 불안검사 전체 문항들의 2 요인 구조

	요인 1	요인 2	h <sup>2</sup>
S1 평안하다	.79	.22	.68
S2 안정된 느낌	.77	.21	.66
S5 마음이 편함	.74	.22	.60
S20 기분이 좋다	.72	.15	.55
S10 편안하다	.70	.17	.53
T26 마음 편함	.69	.23	.54
T36 만족스럽다	.68	.17	.51
T39 안정된 사람	.67	.28	.54
S16 만족감 느낌	.67	.18	.49
S8 흡족하다	.67	.16	.48
T21 유쾌하다	.66	.12	.46
T30 행복하다	.65	.13	.44
S15 느긋한 기분	.64	.19	.46
S11 자신감 느낌	.60	.22	.42
T33 안전감 느낌	.60	.23	.42
T23 자신에 만족	.59	.24	.42
T27 느긋하다	.58	.21	.39
S19 동요없이안정	.55	.32	.42
T34 힘들없이결정	.28	.05	.09
S9 두렵다	.21	.64	.47
T31 생각마음혼란	.25	.64	.49
T40 당면걱정긴장	.18	.63	.44
T22 초조안절부절	.16	.63	.43
T37 지나친고로움	.20	.63	.45
S13 초조하다	.25	.62	.46
S17 불안하다	.29	.61	.47
S7 불행다칠걱정	.20	.61	.42
S18 혼란스럽다	.24	.60	.42
T28 걱정많고피로	.27	.59	.43
S14 어찌할바모름	.19	.57	.37
T35 자신이부적절	.19	.56	.36
S6 속상하다	.27	.55	.39
T29 사소한 걱정	.16	.55	.33
T38 낙심 못 떨끔	.21	.55	.35
T32 자신감 없다	.18	.53	.32
S12 안절부절	.19	.51	.30
T25 낙오자	.20	.50	.30
S3 긴장감 느낌	.13	.45	.23
S4 심하게 긴장	-.05	.33	.11
T24 타인차람행복	-.00	.25	.07
전체(41.65%)	9.15	7.51	16.67

< 표 8 > 상태 특성 불안검사 전체 문항들의 3 요인 구조

	요인 1	요인 2	요인 3	h <sup>2</sup>
S1 평안 하다	.78	.07	.27	.69
S2 안정된 느낌	.76	.06	.27	.67
S5 마음이 편함	.73	.05	.31	.63
S20 기분이 좋다	.71	.06	.18	.55
S10 편안하다	.69	.03	.25	.55
T26 마음 편함	.69	.24	.10	.55
T36 만족스럽다	.68	.23	.03	.53
T39 안정된 사람	.67	.31	.10	.57
T21 유쾌하다	.66	.20	.00	.49
S16 만족감 느낌	.66	.11	.17	.49
S8 흡족하다	.66	.07	.19	.49
T30 행복하다	.65	.22	-.01	.48
S15 느긋한 기분	.63	.07	.23	.47
S11 자신감 느낌	.60	.23	.10	.43
T23 자신에 만족	.60	.33	.02	.47
T33 안전감 느낌	.59	.21	.13	.42
T27 느긋하다	.58	.18	.14	.39
S19 동요없이안정	.54	.13	.35	.44
T34 힘들없이결정	.28	.08	.01	.09
T37 지나친고로움	.19	.69	.20	.56
T29 사소한 걱정	.15	.67	.11	.49
T40 당면걱정긴장	.16	.64	.25	.51
T31 생각마음혼란	.24	.63	.28	.55
T38 낙심 못 떨끔	.20	.60	.17	.44
T35 자신이부적절	.18	.59	.20	.43
T28 걱정많고피로	.26	.56	.27	.46
T32 자신감 없다	.17	.54	.21	.37
T22 초조안절부절	.15	.52	.37	.44
T25 낙오자	.19	.50	.21	.34
T24 타인차람행복	-.00	.28	.07	.09
S17 불안하다	.26	.20	.70	.62
S13 초조하다	.22	.25	.66	.55
S18 혼란스럽다	.22	.25	.63	.51
S9 두렵다	.18	.31	.63	.53
S6 속상하다	.24	.23	.58	.46
S3 긴장감 느낌	.10	.11	.56	.36
S14 어찌할바모름	.17	.27	.56	.42
S7 불행다칠걱정	.17	.19	.55	.38
S4 심하게 긴장	-.07	.09	.38	.16
전체(46.75%)	8.88	4.91	4.69	18.49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한편, 국내 자료 가운데 8216 명의 전체 대상과 1000명의 표준화 집단에서 얻은 요인 구조간의 일치도 계수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얻었을 때 상태 불안검사가 .99이었고, 특성 불안검사는 .92이었다. 일치도 계수는 Spielberger(1983)에 의해서 보고된 요인 분석 결과에서 두 요인 해결 방식으로 얻은 요인 부하량 가운데 자료가 보고된 값만에 의하여 추정되었다. 따라서 모든 요인 부하량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일치도 계수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Spielberger의 자료가 입수되는데로 다시 보고하기로 한다.

상태-특성 불안검사 전체 문항의 요인 구조: 상태-특성 불안검사 전체 문항들의 요인 구조는 X형 검사가 개발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보고된 바가 있다. 한국형 Y 불안검사의 요인 구조는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2요인 해결법과 3요인 해결법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은 요인 구조의 경우 세 요인들만 모두 공유가 1.00 이상이었다. 두 요인을 지정한 요인분석에서는 전체 변량의 42%가 설명되었으며 세 요인들로는 전체 변량의 47%가 설명되었다. 두 요인을 지정한 요인 분석 결과와 세 요인을 지정한 요인 분석 결과는 각각 표 7 및 표 8과 같다.

위의 표 7에서 제시된 두 요인들은 상태 및 특성 불안을 나타내는 불안있음 요인의 21개 문항들과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불안없음 요인의 19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sup>2)</sup> 세 요인 분석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불안과 관련된 불안있음 요인의 문항들이 걱정 요인과 불안-초조-긴장을 의미하는 두 하위 요인들로 분할되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세 요인 구조는 Spielberger(1983)에 의해서도 보고된 바가 있다.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공존타당도: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1953)의 표출불안검사(MAS)와 Eysenck (1985)의 의학질문지(MMQ)와의 상관계수를 Pearson의 적률상관으로 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한덕웅, 이창호와 탁진국(1993)에 의해서 제작된 상태-특성 불안검사 X형과 MAS 및 MMQ와의 상관을 산출한 값을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 표 9 > 상태-특성 불안검사와 MAS 및 MMQ의 공존타당도(r)

	특성불안검사	MAS	MMQ
상태불안검사	.71	.48(.50)	.47(.45)
특성불안검사		.68(.49)	.66(.50)
MAS			.80

표 9에서 보는데로 특성 불안검사 득점과 MAS 및 MMQ 득점과의 상관은 각각 .68과 .66으로서 상태 불안검사와 MAS 및 MMQ와의 상관보다 높은 상관을 보인다. 이 결과는 MAS나 MMQ가 개인의 비교적 안정된 불안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된 일종의 특성불안검사라는 점에서 상태-특성 불안검사 중 특성불안검사의 높은 타당도를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참고로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X형에서 측정된 특성불안검사 득점으로 MAS나 MMQ와의 상관을 구했을 때 Y형보다 낮은 상관을 보인 점은 Y형 특성불안 측정치의 공존타당도가 X형보다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는데로 한국어판 상태-특성 불안검사 간의 상관은  $r=.71$ 이었는데, Spielberger가 보고한 미국어판에서는 성인 남자  $r=.75$ , 성인 여자  $r=.70$ , 남자 대학생  $r=.65$ , 여자 대학생  $r=.59$ 였다.

2) Spielberger는 필자들과의 사적 통신을 통하여, 불안있음과 불안없음 요인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수를 동수로 하자는 필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수용하여 수정할 계획이다.

< 표 10 > 한국인과 미국인의 상태-특성 불안 점수 평균과 차이 검증(t)

	상 태					특 성				
	한국		미국		t	한국		미국		t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고교 남자	187	46.34	202	39.45	6.69***	179	47.80	202	40.17	7.06***
여자	188	48.80	222	40.54	7.95***	185	49.48	222	40.97	8.26***
대학 남자	2884	40.05	324	36.47	6.17***	2858	40.68	324	38.30	4.41***
여자	1488	41.53	531	38.76	4.86***	1468	41.73	531	40.40	2.71**
성인 남자	103	41.09	1387	35.72	4.59***	96	42.38	1387	34.89	6.94***
여자	90	42.30	451	35.20	5.92***	84	44.40	451	34.79	8.43***

한국인과 미국인의 불안 수준: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점사를 사용하여 남녀 한국인과 미국인 가운데 고교생, 대학생 및 성인의 상태-특성 불안을 측정된 평균들과 차이를 검증한(t)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이 표로부터 Spielberger척도로 측정했을 때 성별, 학력 혹은 연령에 관계없이, 그리고 상태불안이나 특성불안에 관계없이,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모두 높은 불안 득점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차이 검증에서 사용된 t검증 방법 때문에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높은 불안을 보인 현상이 사례수의 차이에 따른 통계적 작위성(artifact)에 따른 결과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여자 대학생을 포함해서 몇 집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Spielberger의 불안 정의로 볼 때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서 대체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 결과를 어떤 배경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필자들의 견해로는 전통 문화의 차이 이외에 적어도 최근 수십 년에 걸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경험이 관련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정한다면 상태-특성 불안점사의 세 요인 구조에서 제시된 걱정요인이 현실적 불안 상황의 영향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이 요인에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가설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 한국에서 전체 규준의 제작에 사용된 1000명의 표본 가운데

연령 및 성별이 밝혀진 자료로부터 상태-특성 불안점사의 득점 평균(표준편차)이 산출되었다(표 11). 이 표의 자료 가운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의 검증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었다.

성별에 따른 불안 득점의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한 표 12로부터 상태불안에서는 30대 이상을 제외하고 10대와 20대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특성불안에서는 10대의 연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 이외에, 20대와 30대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덕웅, 이창호와 탁진국(1993)이 상태-특성 불안검사 X형을 전국 6개 대학 1781명에게 실시한 결과에서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불안 수준을 보임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결과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로서 표 12의 평균이 산출된 연령과 동일한 세대이므로, 두 연구의 결과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젊은 남성보다 높은 불안을 보인 배경 요인들로는 성별에 따른 기질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도 성인으로 성숙하게 되는 시점에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현실과 관련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미국인보다 한국인의 불안 수치가 높았던 결과를 해석할 때 필자가 제안한 바와 유사하게 한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현실적 걱정거리로 인해서 불안수준이 높다는 가설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 표 11 >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태-특성 불안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전 체		10대		20대		3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상 태								
N	492	479	195	198	195	196	102	85
M	43.25	45.32	44.55	46.22	43.17	45.75	40.91	42.20
SD	(9.66)	(10.05)	(9.46)	(10.12)	(9.49)	(10.18)	(9.84)	(9.06)
특 성								
N	489	471	195	196	197	197	97	78
M	43.98	45.77	45.63	47.81	43.29	44.47	42.07	43.94
SD	(10.26)	(10.42)	(9.73)	(10.83)	(10.62)	(10.02)	(10.16)	(9.62)

< 표 12 > 남녀별 상태-특성불안 점수 평균의 차이

	상 태			특 성		
	남자	여자	t	남자	여자	t
10대	44.55	46.22	-1.69*	45.63	47.81	-2.09*
20대	43.17	45.75	-2.59**	43.29	44.47	-1.14
30대 이상	40.91	42.20	-0.92	42.07	43.94	-1.24

(주) ‘-’ 부호는 앞 조건의 불안 수준이 뒤의 조건이나 집단보다 더 낮음을 의미한다.

< 표 13 > 연령별 상태-특성불안 점수 평균의 차이 검증(t)

	상 태		특 성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20대	1.44	0.46	2.27*	3.15***
10대-30대	3.10**	3.16**	2.89**	2.89**
20대-30대	1.92*	2.77**	0.94	0.41

표 13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상태불안에서는 남녀 모두 10대와 20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특성불안에서는 남녀 모두 20대와 30대 이상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결과는 상태불안에서는 10대와 20대의 사회적 독립 시기에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이다가 30대 이상에서 불안 수준이 낮아지지만, 특성불안은 20대 이후에 안정된 수준을 유지함을 시사한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불안 수준의 변화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와 아울러 다른 연구들과

의 비교 논의가 필요하다.

평상시와 시험 조건의 불안 수준: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타당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시험 조건에서도 상태-특성 불안 수준의 가정이 지지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구분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시험 조건에서는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불안을 경험하겠지만 특성불안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태불안에서는 시험시의 득점과 평

상시의 특점의 상관이 낮지만 특성불안에서는 여전히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리라고 예언된다. 이 예언을 검증하기 위하여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신입생 67명을 대상으로 평상시 강의 조건과 시험 직전의 두 조건에서 상태-특성 불안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조건간의 시점 차이는 56일이었다. 두 조건에서 얻은 상태불안 측정치의 평균과 두 조건간의 상관은 표 14 및 표 15와 같다.

이 표에서 상태불안검사 특점으로 보면 평상시 강의 조건에서 평균 42.24였으나 시험 조건에서는 평균 57.15로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t=8.61, p < .001$ ). 이는 시험 조건에서 평상시보다 상태불안이 높아서 상태불안검사의 좋은 타당도를 보여준다. 두 조건에서 얻은 상태불안 특점들 간의 상관은  $r=.24$ 로서 유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 결과는 평상시 상태불안 수준이 시험 조건의 불안 수준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태불안검사를 문항별로 분석하였을때에도 '나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는 한 문항에서만  $r=.32$ 로서  $p < .01$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평상시와 시험 조건에서 경험하는 상태불안 수준의 일치도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큼을 시사한다. 한편, 특성불안에서도 Spielberger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평상시의 평균은 43.74인데 비해서 시험 조건에서는 평균 45.68로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1.39, n.s$ ). 또한, 평상시 강의 조건과 시험 조건에서 얻은 특성불안 특점의 상관은  $r=.70$ 로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특성 불안검사의 문항별로 분석했 때도 '나는 당면한 걱정거리를 생각하면 긴장하거나 혼란스럽다'의 문항에서만 평상시와 시험 조건의 상관인  $r=.21$ 로서 유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이 결과들은 특성불안 총점이나 각 문항들이 개인의 일반적인고 안정된 불안 성향을 측정한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 표 14 > 평상 학업 조건과 시험 조건의 상태 불안 평균과 상관계수

	평상시 평균	시험직전 평균	r
1. 평안하다	2.22(0.80)	1.62(0.78)	0.08
2. 안정된 느낌	2.18(0.79)	1.54(0.71)	0.15
3. 긴장감 느낌	1.90(0.64)	2.83(0.90)	0.17
4. 심하게 긴장	1.25(0.47)	1.98(0.85)	0.05
5. 마음이 편함	2.22(0.76)	1.52(0.69)	0.02
6. 속상하다	1.31(0.53)	2.15(0.94)	0.06
7. 불행닥칠걱정	1.23(0.55)	1.79(0.80)	-0.18
8. 흡족하다	2.23(0.81)	1.52(0.66)	0.21
9. 두렵다	1.34(0.67)	2.05(0.86)	0.19
10. 편안하다	2.23(0.81)	1.52(0.64)	0.19
11. 자신감 느낌	2.43(0.83)	1.65(0.74)	0.23
12. 안절부절	1.31(0.53)	2.20(0.85)	0.21
13. 초조하다	1.42(0.56)	2.35(0.91)	-0.05
14. 어찌할바모름	1.35(0.57)	2.21(0.87)	0.16
15. 느긋한 기분	2.09(0.78)	1.48(0.66)	0.15
16. 만족감 느낌	2.09(0.80)	1.43(0.66)	0.13
17. 불안하다	1.46(0.64)	2.45(0.87)	0.16
18. 혼란스럽다	1.51(0.81)	2.36(0.86)	0.16
19. 등요없이안정	2.22(0.88)	1.65(0.76)	0.32**
20. 기분이 좋다	2.09(0.70)	1.55(0.71)	0.05
상태불안 총점	42.24(9.27)	57.15(10.74)	0.24

< 표 15 > 평상 학업 조건과 시험 조건의 특성 불안 평균과 상관계수

	평상시 평균	시험직전 평균	r
21. 유쾌하다	2.54(0.64)	2.59(0.56)	0.41***
22. 초조안절부절	1.45(0.50)	1.66(0.59)	0.41***
23. 자신에 만족	2.48(0.64)	2.42(0.77)	0.39**
24. 타인처럼행복	2.47(0.79)	2.57(0.92)	0.29*
25. 낙오자	1.43(0.53)	1.71(0.65)	0.37**
26. 마음 편함	2.63(0.65)	2.62(0.72)	0.59***
27. 느긋하다	2.34(0.71)	2.58(0.71)	0.57***
28. 걱정과 피로	1.83(0.82)	2.20(0.79)	0.51***
29. 사소한 걱정	2.33(0.87)	2.33(0.85)	0.55***
30. 행복하다	2.57(0.66)	2.56(0.64)	0.57***
31. 생각마음혼란	1.89(0.71)	1.66(0.59)	0.30*
32. 자신감 없다	1.71(0.58)	1.95(0.59)	0.46***
33. 안전감 느낌	2.74(0.69)	2.70(0.77)	0.43***
34. 힘들없이결정	1.92(0.83)	2.02(0.70)	0.71***
35. 자신이부적절	1.57(0.49)	1.86(0.63)	0.45***
36. 만족스럽다	2.55(0.66)	2.44(0.71)	0.53***
37. 지나친괴로움	1.89(0.79)	2.09(0.84)	0.52***
38. 낙심 못 멀끔	2.03(0.81)	2.15(0.81)	0.44***
39. 안정된 사람	2.57(0.66)	2.51(0.71)	0.54***
40. 당면걱정긴장	2.20(0.64)	2.26(0.78)	0.21
특성불안 총점	43.74(7.64)	45.68(8.53)	0.70***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 조건과 시험 조건에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수준을 다룬 이 연구 결과들 가운데 각각 한 문항씩 모두 두 문항들에서 Spielberger의 두 불안 정의를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이 두 문항들에 관해서는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하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해당 문항의 폐기나 개선 혹은 대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한국어판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특히 상태-특성 불안검사 각각의 총점은 좋은 검사로서 요구되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특성불안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두 문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요인 구조, 문항-잔여 문항 내적합치도, 재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 두 문항들을 대체한 한국인판 특성불안검사를 제작하였다. 장차 한국에서, 이 연구에서 보고된 이외의 연령, 직업 및 임상집단 등에 상태-특성 불안검사를 사용할 때, 이 문항들을 함께 포함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담, 임상, 건강, 노인 분야는 물론, 다양한 조직 등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이 검사가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순목 (1995). Comcong.exe: 요인구조간의 일치정도를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한국 산업 조직 심리학회보*, 1(1), 18-22.

한덕용 · 이창호 ·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성균관대: 학생지도연구*, 10, 214-222.

Cattell, R. B. (1966). Patterns of change: Measurement in relation to state dimension, trait change, lability, and process concepts. *Handbook of Multivariate Experiment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 Co.

Eysenck, H. J., & Eysenck, M. W.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New York: Plenum Press.

Spielberger, C. D. (1966). Theory and research on anxiety. In C.D. Spielberger (Ed.), *Anxiety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Form 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Taylor, J. A. (1953).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 285-290.

## Korean Adaptation of Spielberger's STAI (K-STAI)

Doug-Woong Hahn, Chang-Ho Lee, and Kyum-Koo Chon

Department of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KyunKwan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National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therapy, TaeguUniversity

Attempts were made to adapt STAI (Spielberger, 1983) to Korean culture. Participants were 8216 in total: high school students (385), junior college students (3,172), college students (4,452), and adults (207). In order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STAI, a variety of methods was utilized. More specifically, reliability was examined by item-total correlations, Cronbach's  $\alpha$ , test-retest reliability. Validity was also examined by factor analysis, consistency estim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by the COMCONGC method, comparison of anxiety scores between exam period and non-exam period, and concurrent validity with MAS and MMQ. As a whol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revealed to be satisfactory. In addition, in order to construct norms, a subsample of 1000 from the total sample was selected by systematic sampling, resulting in a similar proportion to the general population. With this subsample, two forms of K-STAI were constructed: a Korean type of K-STAI, and an American type of K-STAI. Norms were established by gender, sex, and education as well as general population. When based on the American type of K-STAI, Koreans revealed a higher anxiety score than Americans did. In a similar fashion, females showed a higher level of anxiety scores than did males, as did those in their 10s, and 20s over those in their 30s. Finally, the present findings are discussed and future implications are suggested.